

우리의 열과도 같은 한우지키기에 관련인 모두가 동참해야

국민 1인당 연간쇠고기소비량이 5.1kg에 달하는등 소비가 급격하게 신장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쇠고기수출국들의 식량종속으로 전락되는 일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쇠고기수입개방까지는 4년6개월, 이 기간안에 어떻게 정책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한우사육농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장래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 만큼 한우사육농가·정부·관련단체 모두의 단합된 힘의 결집과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이 종 순
농민신문 기자

요즘 같아서는 소에게 사료를 줄 힘마저 안납니다.

올해로 21년째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박종신씨(58·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수곡리)는 최근의 소값하락 및 무절제한 쇠고기 수입등을 바라보는 심정을 이같이 표현하고 현재 쇠고기가 제한수입되고있는데도 수입쇠고기가 이미 6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오는 97년에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된다면 농촌의 마지막 소득작목인 한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며 대부분의 한우사육농가들은 장래를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 누런 황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역사의 부침을 같이해온 가축이다. 본격적인 기계화 영농이 되기전인 70년대까지만해도 논·밭을 가는 역용우(役用牛)로 현재는 우리 국민에게 맛있는 쇠고기를 제공해주는 역할까지도.

우리나라 한우사육은 경작농업을 하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부업형태사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가소득중에서 한우사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우 3마리를 부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구봉춘씨(62·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는 「논

10마지기를 경작해 얻는 소득과 부업으로 한 우암소 3마리를 사육해 얻는 이익과 별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한우가 최근들어서는 밀려드는 수입쇠고기의 거센파고에 밀려 좌초위기에 직면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쇠고기시장이 완전 수입자유화가 안된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쇠고기수입이 재개된 지난 88년이후 수입쇠고기소비가 급증 91년도에는 12만5천여t이 수입돼 국내쇠고기 시장점유율이 56%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도 13만2천t이 수입돼 국내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쇠고기수출국들과 쇠고기협상을 통해 정한 연도별 수입쿼터(할당) 물량인 91년의 6만2천t, 92년 6만6천t의 2배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정부스스로가 설정한 쇠고기 자급율 60%를 지키지않는 대신에 수입쇠고기의 국내쇠고기시장점유율이 오히려 60%에 달하는 모순된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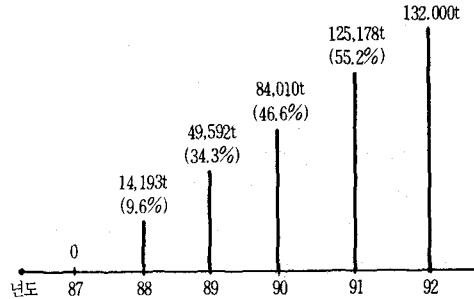
이처럼 쇠고기수입이 급증하게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불가안정정책을 내세운 정부가 국내 축산물값 안정등을 위해 「수입쇠고기의 저가대량방출→쇠고기수요증대→무제한 쇠고기수입→수입쇠고기 국내시장잠식 가속화」라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80년대 후반의 무역수지흑자와 임금상승등의 영향으로 쇠고기소비가 크게 증가한데 비해 한우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도 지적된다.

지난 85년에 2백50여만 마리에 달했던 한우 사육마리수는 89년에는 1백77여만마리로 지난해 9월에는 2백만마리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축산물값이 조금이라도 상승기미를 보이면 수입쇠고기저가대량방출 정책에 의존해 왔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

표1 연도별 쇠고기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 자료 : 농림수산부

러한 정책은 국내의 다른 축산물값에까지 영향을 주는 독특한 「수입쇠고기문화」를 창출해 내기에 이른 것이다.

즉 수입쇠고기포장육값은 지난해 11월 12일 인상되기전까지만해도 89년이후 3년여동안이나 2천8백50원(5백g 중등육기준)이었으나 89년에서 91년사이에 국내산쇠고기소비자값은 23.5%가 상승했고 돼지고기값과도 큰차이가 없어 돼지고기소비층을 수입쇠고기소비층으로 크게 이동시킴으로서 돼지고기소비위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돼지고기 하락요인이 되고 있다는 양돈농가들의 피해의식이 확산돼 있다.

양돈농가들은 최근 돼지고기 값이 하락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에도 원인이 있지만 값싼 수입쇠고기 대량방출로 돼지고기소비층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들어서는 도매시장의 수입 쇠고기 고급지육경락값(지육1kg당)이 7천원대로 상승했지만 같은 해 8월의 경우만해도

(표2)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 추세 (단위 : g)

연도	80	85	87	89	90	91	92
소비량	2,622	2,923	3,600	3,382	4,136	5,160	5,400

* 92년은 잠정치임



축협은 지난 91년도에는 6천4백여t 지난해 8월까지 5천6백여t에 달하는 수입쇠고기를 군부대에 납품했었다.

이처럼 수입쇠고기는 수많은 부작용과 국내생산농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면서 무차별침투 이제는 농촌과 도시등 전국에 수입쇠고기 문화가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쇠고기 문화에 밀려 국내한우를 살리자 하면서도 한우사육기반 확대와 보호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평균 4천4백18원으로 같은 기간의 국내산 지육 평균 경락값인 7천2백78원보다 39.3%가 싼값이어서 가격면에서 국내한우고기의 경쟁력은 상실된 상태이다.

이처럼 수입쇠고기가 국내다른 축산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등은 쇠고기 수입과 수입쇠고기소비를 늘려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수입쇠고기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4천여개에 달하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지정해 주었고 축협과 한국냉장도 각각 1백개가 넘는 수입쇠고기포장육 대리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들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지역에 절반에 해당하는 2천여개가 밀집돼 있어 이 지역에서의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등 질 좋은 한우고기를 높은값에 구입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입쇠고기가 무차별 방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비해 순수한고기를 판매하는 한우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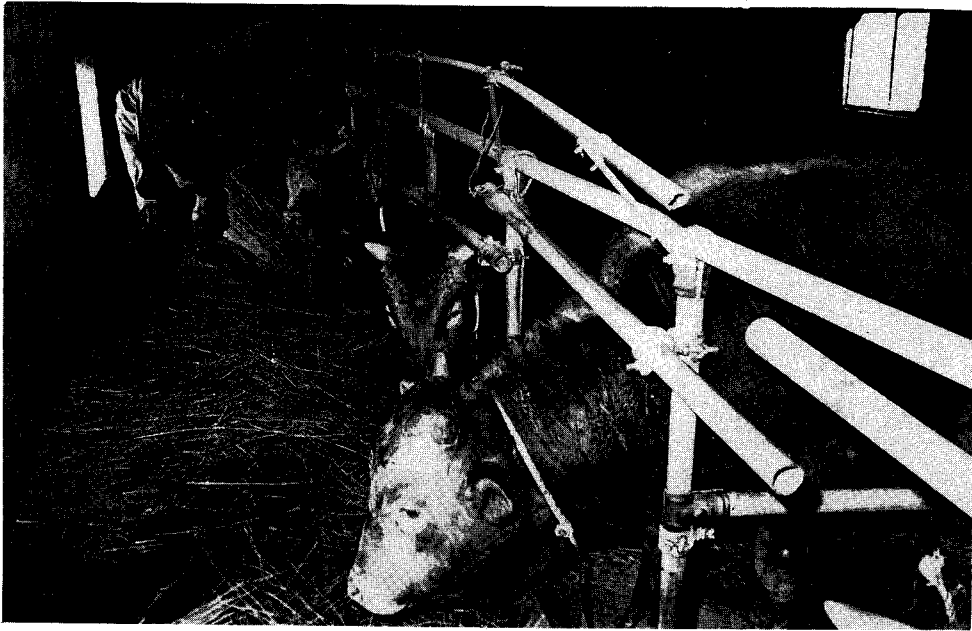
전문판매점은 극히 적은 실정이어서 생산자단체가 유통이윤이 높은 수입쇠고기판매에 치중했다고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처럼 수입육전문판매점이 증가한 것은 수입쇠고기유통이윤이 국내산 쇠고기보다 2배이상 높기때문이다」며 「앞으로 수입쇠고기판매이윤을 줄이고 생산자단체들의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입쇠고기는 또한 순수한우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역할까지도 맡아왔다.

국내쇠고기 유통구조가 국내산쇠고기와 수입쇠고기로 이원화(二元化)되면서 일부업자들이 그 가격차를 이용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소비자들은 한우고기질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불신감때문에 수입쇠고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 한우고기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생산자단체가 쇠고기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까지 맡고 나섬으로써 수입쇠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심어진 것과 심지어 군장병급 식용 쇠고기를 전량 수입쇠고기로 대체공급하고 있는 것도 수입쇠고기 소비촉진을 불리왔다는 지적이다.

축협은 지난 91년도에는 6천4백여t 지난해 8월까지의 5천6백여t에 달하는 수입쇠고기를 군부대에 납품했었다.

이처럼 수입쇠고기는 수많은 부작용과 국내 생산농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면서 무차별침투 이제는 농촌과 도시등 전국에 수입쇠고기 문화가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쇠고기 문화에 밀려 국내한우를 살리자하면서도 한우사육기반 확대와 보호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내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목표아래 전업농중심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전체 한우사육농가의 대다수(82%)를 차지하는 5마리미만의 부업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단절돼 있는 실정이

다.

관계전문가들은 「국내한우사육이 부업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한우사육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며 「전업양축농가에게 지원되는 축산진흥기금등 정책성 장기저리자금을 부업양축농가까지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수입개방에 대비 국내축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2조5천5백50억원을 장기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을 우리나라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국제수지위원회(BOP) 졸업에 따라 축산물 시장개방이 97년으로 임박한 만큼 경쟁력확보를 위해 수입개방전인 96년까지 투자재원을 집중투자 해야한다는 지

(표3) 국별 소사육마리수 및 쇠고기수출량

수출량(천톤, 지역기준)	39	106	103	135	219	325	980	137	-	-	
마리수(천마리)	98,886	11,188	25,027	8,005	102,881	19,886	19,488	11,846	4,863	2,126	
국	영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 기준년도 : 91년 잠정치,
자료 : 미국농무부(USDA)

적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쇠고기수입개방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축산업은 국제규정을 허용받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이 주요재원인 축산진흥기금마련이 어려워져 양축농가에 대한 장기저리 자금지원이 제약받게 되고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보조와 생산요소 및 금융·세제상의 정부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관계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격보다 육질경쟁에 있는 만큼 만연된 쇠고기유통부조리를 척결, 쇠고기유통구조를 혁신시켜 육질에 따른 차등가격제가 정착됨으로써 한우사육농가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수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고급육생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우사육농가들은 「정부가 고급육을 높은 값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왔지만 노폐우등 원가가 낮은 쇠고기를 높은 값에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상 방조해왔다」며 「진체쇠고기 유통량중 한우고기는 20%정도에 불과하므로 육질차등가격제가 정착되면 현재보다 쇠고기소비자 값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우산업과 관련한 통합적 정책추진이 안되고 있고 축산업구조개선과 한우육성정책이 산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높은만큼 ▲정부기구내에 「한우우과」 신설 ▲축협중앙회에 「한우우사업단」설치 ▲한우우산업육성에 관한 독립법률제정 및 한우우협동조합설립 허용등이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우사육농가들도 한우사육에 대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수입개방등에 적극대처해 나가야하며 정부도 스스로 설정한 쇠고기 자금유을 유지토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다.

(표4) 외국의 소값과 가격비교 (단위 400kg/천원)

년 도	92년 10월	509	305	2,449
	91년	507	286	2,192
국 별		미 국	호 주	한 국

아무튼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은 쇠고기수출국들의 시장개방압력에 따라 97년에 완전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농산물협상타결등으로 개방시기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쇠고기시장이 개방되면 쇠고기수출국들은 싼값에 대량으로 국내쇠고기시장을 무차별공략, 국내 한우생산 기반을 무너뜨린 다음 쇠고기값을 인상시키는 등 식량무기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 1인당 연간쇠고기소비량이 5.1kg에 달하는등 소비가 급격하게 신장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쇠고기수출국들의 식량종속으로 전략되는 일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쇠고기수입개방까지는 4년6개월, 이기간안에 어떻게 정책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한우사육농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장래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 만큼 한우사육농가·정부·관련단체 모두의 단합된 힘의 결집과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